

# 社會批判 理論의 教育學

尹 桂 月\*

## 目 次

- |                   |                    |
|-------------------|--------------------|
| I. 序 論            | 3. Herbert Marcuse |
| II. 「批判」의 意味      | 4. Jurgen Habermas |
| III. 傳統理論과 批判理論   | V. 社會批判的 教育學의 主要內容 |
| IV. 社會批判理論의 展開    | VI. 結 論            |
| 1. Max Horkheimer | 參考文獻               |
| 2. Theodor Adorno |                    |

## I. 序 論

Frankfurt 學派의 代表的 思想家인 Horkheimer, Adorno, Marcuse, Habermas에 의해서 社會批判理論이 公同적으로 提起되었다. 哲學과 批判理論의 關係가 定礎되며 나아가 批判理論에 있어서의 중심概念이 되는 「批判概念」의 意味와 目標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설정을 通하여 오늘날의 哲學의 課題와 任務과 機能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現代사회에 있어서의 哲學의 나아갈 방향과 批判理論에 있어서의 哲學的 認識 혹은 社會認識의 관심과 그 구체적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론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西歐哲學의 全 歷史를 通하여 나타나고 있는

---

\* 人文大學 講師, 教育學博士

反省(Reflexion)과 批判(Kritik)이라는 哲學的 정신에서 起因하고 있다.<sup>1)</sup> 이 반성적 태도와 정신은 사회적 현실의 전반적 위기(Krisis)에 대한 意識에서 나온 것이며,<sup>2)</sup> 이러한 위기의식은 위기에 대한 克服意識으로 발전하게 된다. 批判意識은 바로 이러한 위기극복의식의 계기가 된다.

Max horkheimer, Theodor Adorno, Herbert Marcuse, Jürgen Habermas 등으로 대표되는 Frankfurt 學派는 管理支配 社會와 그 사회체제의 Ideologie를 啓蒙的 理性的 자기반성에 의해 비판적으로 부정하고 無化함으로써 脫 近代社會를 구성할 수 있는 主體性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을 사회비판적 이론이라고도 말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Frankfurt市에 소재하는 「社會研究所」(Institut für Sozialforschung)를 근거로 하여 이 연구소의 기관지 社會研究年誌(Jeitschrift für Sozialforschung)를 발간하면서 社會批判정신을 계승하여 왔다고 해서 이들을 Frankfurt 學派라고도 부른다.<sup>3)</sup>

일반적으로 「批判的 教育學」(Kritische Pädagogik) 또는 「解放的 教育學」(Emanzipatorische Pädagogik)으로 불리우는 이 교육학의 思想的 基底는 Frankfurt 學派의 사회비판적 이론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산업화과정을 거쳐 Habermas가 지적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人文 社會科學의 여러 분야에서는 사회비판적 이론의 시각에서의 산업사회의 특징들을 제거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Marx로 부터 訣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Habermas는 Marx의 哲學的 人間學을 해석학적 傳統에서 修正하여 적용함으로써 Marx를 批判하고 나아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이르고 解放的 관심의 理論과 實踐을 통하여 理想社會를 實現하고자 했다.

- 
- 1) Frankfurt 학파의 이러한 반성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는 그들의 全作에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Habermas의 “Die Kriseder Frkenntnisknitik” in : Erkenntnis und Interesse, Suhrkamp V. Frankfurt(M), 1968 참조.
  - 2) 이 點에서 Kritik와 Krisis는 同一한 語根을 갖고 있다는 點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 3) 黃源泳, 「社會批判 理論과 韓國教育哲學과의 連繫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19집, 1985. p547.

本 研究論文에서는 Frankfurt 學派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Horkheimer, Theodor Adorno, Herbert Marcuse, Jürgen Habermas 등. 관점과 교육학과 관련되는 사회비판적 이론의 맥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 허 보기로 한다.

## Ⅱ. 「批判」의 意味

비판이론에 있어서 「批判」의 意味는 Horkheimer를 중심으로 한 Frank派의 사상가들이 그들의 批判的 태도와 정신을 어떠한 哲學的 傳統속에서 으며, 그러한 입장을 取하게 되었던 動因으로서의 社會的 歷史的 現實은 어이었으며 그들의 批判의 구체적 대상들은 무엇이며 나아가 批判의 방법과 이념은 무엇이며, 批判의 내재적 조건으로서 批判의 원리는 인간이성의 어 면에서 나온 것인가 등을 把握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批判理論의 批判이 한편으로는 批判的 傳統을 固守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것을 批判하면서 새로운 批判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社會的·歷史的 變化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의 변화는 몇 가지 점에서 요약할 수 :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도산업사회의 출현이 그 하나이다.

이것은 적어도 西歐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는 Marx가 일찍이 예언했다 의 絶對化로부터 人間을 해방시켜주는 는 했으나 새로운 형태의 人配狀態와 隸屬化를 초래하게 했다. 技術的 合理性의 全體主義的 社會社會의 자기생산 Mechanism, Technocracy의 출현으로 因한 非人間化, 物意味한다.

둘째로 Ideologie의 변질이다. 자본주의 사회와 Soviet 공산주의 모두 專적 社會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적 支配形態에 있어서나 경제·화에 있어서나 모두 一次元的 社會로 把握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대사·

세째로 현대의 諸 個別科學의 발전과 비판적 합리주의 隆盛,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형이상학의 出現 및 多様な 哲學體系의 亂立이다. 여기서 하나의 社會哲學으로서의 批判理論과 타학문과의 관계정립이 요청된다.<sup>4)</sup>

批判의 원리는 Hegel의 辨證法的 思考에서 나온 것이며 그 核心은 理性的 否定性(Negation)에 있다. 이것은 곧 社會批判理論에 認識論的 準據가 된다. 그러나 비판이론가들은 Hegel 辨證法을 단순히 受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급진화시키고 변형시킨다. Hegel의 觀念論的 辨證法이 Marx에 의해 唯物論的 辨證法으로 현실화된 以後 Stalin주의적 教義와 Fascism 時代에 있어서는 理論과 實踐의 辨證法에 대한 만족할만한 規定을 갖지 못했지만 Horkheimer, Horno, Marcuse, Habermas 등이 처음으로 부르조아적 啓蒙에 대한 告發을 통하여 辨證法的 社會理論 成立시킴으로써 변증법을 再解釋하였다. 그것은 Hegel의 변증법은 否定의 否定(Negation der Negation)을 통한 긍정적 변증법으로서 전체를 진리로 把握하는 現實指定的 哲學임에 反해서 批判理論은 그러한 Hegel의 변증법을 일종의 形式論理學으로 간주하고 Hegel의 綜合이나 調和를 용납하지 않는 現存하는 사실에 대한 批判으로서 현대사회에 대한 批判으로서의 否定的 辨證法(Negative Dialektik)임을 의미한다.

批判은 가능한 지식의 조건에 대한 省察을 의미하고 또한 개인이 얽매어 있는 束縛의 분석을 의미한다. 傳統的 理論이 現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批判的 思考는 問題視한다. 卽 批判的 思考의 目標은 현재의 不幸에 根據를 두고 있다. 그것은 현실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既存現實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다. 批判的 사고의 이러한 이념은 歪曲된 面이나 비합리적인 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에 대한 認識으로서 既存의 狀況下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偶然的으로 思考가 자신을 再認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현실과 현실적인 사실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일한 主體自身이 그러한 理念을 表象하는 것이다.

따라서 批判은 미래를 향한 것이며 可變的인 것이다. 그것은 批判理論自體의 範

4) 文顯丙, 「批判理論에 있어서 哲學 機能」, 부산여대 논문집 제9집(85. 6), pp.182-183.

嚮를 알려주는 역사적 현실적 조건의 분석을 통해 批判理論은 역사적 현실에 대 範圍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點에서 批判理論은 지배적인 비판방식에 대해서 主觀的이고 思辨的이며 一面的이며 無用한 것이라고 誤解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批判理論에 있어서의 批判은 물질적인 업적을 提示해야 하는 것이다. 批判은 단순한 Utopia와는 구별되며 전체주의적 프로파간다처럼 뿌리를 박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처럼 자유로이 浮遊하지도 않는다. 批判理論은 그 自體의 固有한 本質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론과 批判理論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sup>5)</sup>

### Ⅲ. 傳統理論과 批判理論

批判理論의 性格은 Horkheimer의 「傳統理論과 批判理論」이라는 論文 속에서 최초로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Horkheimer는 批判理論은 인간의 모든 역사적 생활 형식들을 생산해 내는 者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社會批判理論은 현재의 여러 분야에서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는 어떤 研究假說이 아니라 인간의 欲求와 힘을 充足시키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效力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한다.<sup>6)</sup> 따라서 단순히 지식자체의 증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인간의 奴隸狀態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 즉 모든 개인들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의 일차적인 원인은 經濟에 있기 때문에 理論的, 實踐的 批判은 먼저 그러한 經濟를 겨냥하는 經濟學批判(Kritik der Okonomie)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비판은 변증법적 哲學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인 바, 변증법적 哲學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社會의 이성적인 상태와 不可分의 관계를 갖는다는 認識을 하고 현상태의 근본을 파고들어 감으로써 經濟批判으로 된 것이다. 올바른 哲學은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분석으

5) 上揭論文, pp.183-184.

6) 上揭論文, pp.177-197.

로부터 空虛하고 연관성없는 카테고리들로 後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면에서 현실을 은폐하려는 傾向이 있는 공허하고 관계없는 세부적인 작업속으로 경제학적인 전문과학에 吸收된 적은 없다고 함으로써 현대의 경제적인 과정속에 법적 정치적 기구나 Ideologie의 機能方式의 변화를 초래케 한 이른바 政治, 文化의 經濟에의 隸屬化를 批判理論이 批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傳統理論의 理論概念은 수학적인 符號體系를 目標로 하고 있다. 理論의 要素나 推論과 命題들의 부분으로서 경험가능한 어떤 對象들의 이름보다는 수학적인 상징들이 애용되고 있다. 그것은 傳統的 의미에서의 理論概念은 모든 부분들이 모순없이 서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整合性이 모든 이론적 體系가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요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理論概念은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인간과 社會에 관한 精神科學에도 적용되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理論모델을 따르고자 하는 社會科學 學派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그러한 理論의 원칙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에 더 치중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구체적인 사실적 자료들을 蒐集함으로써 一般概念을 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산업社會의 生産方式 하의 일상생활에 더 접근하는 듯하나 결코 思考의 構造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傳統的 이론가의 機能과 批判的 活動의 주체의 機能과의 차이에서부터 傳統理論과 批判理論과의 논리적인 구조의 相異性이 나온다는 사실을 Horkheim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事實世界에 대한 概念的 연관관계의 문제이다. 傳統理論에 있어서의 命題들은 그 領域의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 普遍概念들을 정의한다. 그 속에는 여러 단계의 類와 種들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상관적인 後屬關係가 지배한다. 여기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예이며 類의 具體化일 뿐이며 體系의 단위들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概念的 연관관계 속에서 把握되는 현실은 普遍概念에 後屬되는 不變的 必然的인 事實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반면 批判理論에 있어서의 概念關係는 傳統理論에 있어서 처럼 類와 種사이의 단순한 演繹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批判理論도 추상적인 규정들로부터 출발하지만 傳統理論처럼 가설을 통해서 概念들을 현실과 연관짓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Horkheimer에 의하면 批判理論의 概念은 미래에 대한 관심에 의해 引導되고 역사적 推移에 대한 徹底한 분석으

로부터 나오며 각각의 단계에는 과학이나 역사적 경험에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概念的 연관관계의 차이로부터 필연성의 의미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傳統理論이나 批判理論이나 實際상황에 대한 陳述을 보편적인 基本概念으로부터 추론하고 이로써 그러한 상황이 필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나게 한다. 즉 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必然性を 생각할 경우 兩理論의 理論的 構造는 유사하다. 그러나 사실적인 필연성과 사실의 진행과정의 必然성을 문제로 할 때 兩理論은 對立的이라고 한다.

現代의 가장 진보적인 思考形態는 批判社會理論이며 이러한 理論속에 인간의 장래를 걱정하는 始終一貫된 知的 노력이 收斂된다고 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중앙집중적 자본주의의 隆盛과 그에 상응한 傳統的 理論구조는 Ideologie의 機能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萬人에 대한 자주적 권리의 概念은 중요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은 歪曲된 陳述만을 접할 뿐이며 知識과 思考一般에 대한 侮蔑性이 漫然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적, 정치적 지배집단이 社會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학은 인도주의(Humanitat)를 拋棄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自己規定은 차츰 더욱 抽象的인 것으로 되어간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現代社會의 矛盾에 대한 止揚이라는 관심 외에는 어떠한 보편적 基準(Allgemeine Kriterien)도 특수한 要請(Spezifische Instanz)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즉 철저한 부정이 批判理論의 고유한 기준이요 원리인 것이다.

Horkheimer는 理性批判에 있어서 理論內在主義를 「科學主義」(Szientivismus)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傳統的 批判理論의 핵심은 바로 과학주의에 대한 批判이 된다. 그러나 傳統的 理論에 대신하여 理性批判을 수행하여야 할 批判的 理論은 理論에의 內在的 閉鎖性을 타파하고 어떠한 지평에서 批判의 거점을 구하여야 하는가 Horkheimer는 그 지평을 社會라고 말한다. 그는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自記認識은 영원불변의 Logos로서 나타나는 수학적 자연과학이 아니라 理性的 狀態에서의 관심에 의해 지배되는 現存사회에 대한 批判的 理論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자면 批判的 思想의 實踐主體는 從來의 傳統的 理論에서는 階級的이었으나 Horkheimer에 의하면 現代에서는 그러한 階級도 普遍的 集團도 존재하지 않

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批判사상을 자립적으로 형성하는 實踐主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sup>7)</sup>

## IV. 社會批判的 理論의 展開

### 1. Max Horkheimer

#### 1) 批判的 理論의 定礎

Horkheimer가 批判的 理論을 定礎하였던 1920년대말의 지적상황은 마르크스주의의 實證主義化와 마르크스주의의 再哲學化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두가지 서로 대립적인 경향이 Horkheimer의 지적특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실증주의란 Grünberg의 지적입장을 상징하면 傳統的 마르크스주의의 知性속에서 形而上學的 世界觀과 과학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고 唯物論的 歷史把握을 哲學的 唯物論으로 부터 분리시켜 마르크스주의를 실증주의적인 과학으로 파악한다.<sup>8)</sup> 마르크스주의의 실증주의화에서 강조하는 「명확한 연구방법」이란 다음아닌 실증주의적으로 단순화된 사적유물론에 불과하여 마르크스의 학설은 認識論적으로는 소박하고 事實信仰的인 因果研究에 의한 「社會主義社會로의 구체적인 發展法則」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실증주의화에서는 변증법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역사의 모순에 지향하는 行程은 불완전한 것으로 부터 완전한 것으로라는 단순한 진화로 平板化되며 社會의 생활표현은 경제생활의 반영으로 단순화된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의 把握에서 결코 새로운 국면을 맞음이 없이 경제학주의 비철학화 樂觀論的인 진보신앙, 소박한 反映論등의 마르크스주의 실증주의화경향은 Horkheimer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의 再哲學化와 대립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의 再哲學化란 소련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라는 두개의 정통

7) 黃源泳, 前揭論文, pp.556-557.

8) 上揭論文, p.554.

파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여 유물론적 변증법의 철학적 내용을 강화하려는 Georg Lukács와 Karl Korsch 등의 시도를 의미한다. Horkheimer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목적은 절대불변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점에 관련하여 Hegel사상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 敎義를 批判한다. 즉, Hegel사상의 기본적교의는 絶對的 主體 窮極의 優位를 근거로 하여 主體와 客體, 마음과 사물간의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Horkheimer는 정신은 자연에서나 역사에서도 자기를 認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추상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실재와도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Horkheimer는 「思考」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사회, 경제적조건에 기반을 두는 구체적 인간의 특정적 사고가 있을 뿐이며 또한 「存在」가 아니라 세계속의 다양한 존재가 있을 뿐임을 믿는다. Horkheimer는 위대한 진리는 批判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결코 우상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Nietzsche의 명제를 숭상하고 (1991) hegel적 철학적 정신에 기반을 두는 마르크스주의의 實證主義나 마르크스주의의 再哲學化의 어느 편에서도 絶對的 正義의 理念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므로써 마르크스주의의 再哲學化를 지향하되 마르크스주의의 절대적정의의 이념에 편도됨이 없이 변증법적 사회과학의 가능성을 탐색한다.<sup>9)</sup>

## 2) 批判的理論의 歷史的性

Horkheimer의 批判的 理論은 오히려 물질적 조건에 제약되는 「不變性」의 요소를 고집한다. 「시대가 변화하지 않는 한 당연히 새로운 洞察」에의 전환은 있을 수 없으며 또 역사의 轉化以前에는 理論의 轉化도 없다. 왜냐하면 社會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社會의 경제적인 기본구조 계급관계, 이 계급관계의 지양의 이념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Horkheimer의 비판적 이론의 課題는 과연 무엇인가, 그에 의하면 비판적 이론의 課題는 「理性的 觀念論的 概念의 唯物論的 內容」을 명확하게 밝히는 변증법적 批判의 작업이 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社會에 대한 批判이 아니라 소의된 理論에의

9) 上揭論文, p555.

批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理論意識 내지는 理論主體의 변혁이다. 「非同一性의 首尾一貫한 意識으로서의 변증법은 완결한 理論의 자율에 반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실천주체와의 소박한 동일화에도 반대한다. 실천주체의 결여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론주체의 상대적인 자립에의 요구는 理論을 갖는 歴史的, 變協力으로서의 신념을 강화한다. 끝으로 Horkheimer의 비판적이론의 특성을 개관하여 볼 때, 1930년대의 Horkheimer의 관심은 社會문제에 집약되어 있었고, 또 특정의 理論狀況에서의 해방과 변혁의 課題는 理論化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에서는 생산관계의 변혁에 끝이 없는 技術的 合理性기술 그 자체의 변혁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술적 합리성에의 절대적 신뢰는 理性과 自然과의 同一化의 오류에 빠지게 하며 또한 道具的 理性만을 강화시켜 이성의 자기비판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Horkheimer의 비판적이론의 방법적 핵심은 Adorno에 의해 개발된 부정적 변증법의 중심개념인 「限定된 否定」이다.<sup>10)</sup>

### 3) 批判的 考察

Horkheimer 자신에 의하면 「傳統理論과 批判理論」은 두가지 인식양식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Descartes의 인식양식이요,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의 인식양식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Descartes의 「방법론적 서설」(Discours de la Methode)에 근거하고 후자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의 비판」(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Descartes에 의한 傳統理論은 인간 삶의 재생산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거로 해서 경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사회적 전반문제나 실제적인 사회적 상황은 그 자체로 보아서는 외적이다. 즉 社會的 과정 속에서의 재생산은 결정론적이라는 것이다. 자연과학적이론이 전통적 이론에 해당되는가 하면 社會批判理論은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삶이라는 양식의 생산자인 인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볼 때 傳統理論의 현실성은 사회적구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사회적 노동에 근거하

10) 上掲論文, pp.558-559.

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論 자체의 문제는 이상주의적이고 觀念主義的인기는 하지만 批判理論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독일 觀念論의 유산을 탈피하여 哲學 자체의 유산을 그대로 보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 말은 批判理論이야말로 어떤 연구의 가설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하나의 세계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止揚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역사적 진장의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事實 批判理論은 지식 자체의 축적이나 증대를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인간을 노예화의 관계에서 해방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社會批判理論은 경제학에 대한 批判이기도 하지만 역시 철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경제학이 아니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학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소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비판적 철학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11)</sup>

## 2. Theodor Adorno

### 1) Adorno의 否定的 辨證法

Adorno는 그의 否定的 辨證法의 특성에 관해서 「否定的 辨證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인격적으로서도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인격적으로서도 행세하지 않을 때 뿐이다. 자연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은 인격은 아니다. 그러나 「自然의 擴散」(das Diffuse der Natur)은 叡智의 存在의 輪郭, 즉 자아로부터 분리된 自己(人格性)의 윤곽과도 흡사하다. 현대의 예술은 인간의 내부의 어떤 부분에 자극을 준다. 주체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자신을 무조건 지배하기 위해 자기자신의 객관적 규정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는 그전에 먼저 그러한 허구로부터 탈각했어야 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동일성에 확신을 두는 자기자신의 힘으로 虛構의 허세로부터 자기자신

11) 백승균, 「변증법적 비판이론—Frankfurt 학파를 중심으로」, (서울 : 경문사 1982), p.169.

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非實在의 인 것에 대해서는 내재적인 비판을 가할 수가 있다. 인격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인격의 위엄을 부여하는 實體的인 것은 實在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없이 인간 그 자체가 아니다. 극히 당연한 일로서 자기라고 하는 概念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논쟁적으로 자기의 현실성과 대립한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自己疎外에 관한 논의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sup>12)</sup>

Adorno에게 있어서 否定的 辨證法의 기본 성격은 과학의 哲學추방을 전개하는 「理性的 詭計」(List der Vernunft)를 批判的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에 이성 본래의 본질이기도 한 理性的 否定的, 反對的, 矛盾的 潛在力을 계몽하여 현실의 인간소의 현상을 批判的으로 변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변증법의 理論은 이성을 기술적 처리와 지배의 연관으로 조직하여 이성 본래의 본질을 무력화시킨 이성 그 자체를 이번에는 이성 그 자신에 의해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듯 도구적 이성의 횡포를 비판적으로 부정한다. Frankfurt 學派의 제1세대의 비판적 이론은 第2世代의 Jurgen Habermas에게 계승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3)</sup>

## 2) 批判的 考察

實踐이라는 概念에 대칭되는 概念으로서 프랑크푸르트의 신마르크스주의들은 理論이라는 概念을 들었다. 특히 Adorno는 이 理論과 實踐이라는 概念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한 연관성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理論이나 추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현실성에 의해 수정되거나 변혁되는 것이기 때문에 實踐은 종말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理論의 단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論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實踐的 行동을 내포하는 역동적 존재이고, 이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화된 이러한 역사적 사회 이론체제가 Adorno에게는 歷史哲學으로 나타났고 이 歷史哲學은 그의 美學理論의 뒷받침이 되었다.

12) 黃源泳, 前揭論文, p.559.

13) 上揭論文, p.560.

Gedo가 社會批判理論에 대해 원초적인 批判의 계기를 찾았던 것은 1940년 이후 프랑크푸르트 學派에 의한 서구 내지 독일의 정신적 觀念이론이 미국의 자본주의 社會哲學과 啞합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批判理論의 내용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체험함으로써 조정된 것이다<sup>14)</sup> 라는 것이다. 社會批判理論 그 자체가 한계에 다다라서 부당한 변명만을 내걸거나 Utopia에 빠지고 만다면 프랑크푸르트 學派는 서구 마르크스주의 변형으로 등장한 理論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불과하리라는 사실로 그의 논지를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Adorno의 社會批判理論이 야말로 현대 서구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허울을 쓴 삶의 哲學으로 그 삶의 哲學的 입장에서 실증주의를 批判하였을 뿐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참다운 Hegel이나 Marx의 哲學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일 것이다.

### 3. Herbert Marcuse

#### 1) Marcuse의 社會批判的 理論

Marcuse의 哲學的 관심은 바로 批判에 있었고 이 批判은 現存하는 社會的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批判의 능력을 배양해 준 哲學的 근거는 한편으로는 觀念論적 哲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唯物論的 哲學에 있었다. 전자는 Hegel과 Heidegger에서 후자는 Marx와 Freud에서 찾아볼 수 있을른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哲學的 批判이란 진리 자체 혹은 사실 자체에 대한 批判이 아니고, 哲學的 觀念으로 인한 현대 사회구조 및 현상에 대한 社會 辨證法的 批判을 말한다. 이로써 Marcuse는 Hegel과 Marx를 現代 社會哲學的 입장에서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Soviet-marxism」을 批判함은 물론 마르크스주의 社會 理論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 그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疎外現象을 분석하고 批判하는데 관심을 가졌었고, 억압과 착취없는 社會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좌파 내의 반권위주의 운동의

14) 백승균, 前揭書, p252.

기수가 되었던 것이다.<sup>15)</sup>

이러한 Marcuse의 實踐哲學의 관심은 1930년 「理論과 政治」 「여성상」 「Salecina의 대화」 「市民社會에 있어서 발전은 이렇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Marcuse야말로 인간이념을 전제로 한 社會변증법적 批判理論을 그의 社會哲學의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이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 2) 批判的 考察

그의 일차원성의 분석대상은 물론 말할 필요조차 없이 現代産業社會이었다. 이러한 産業社會的 성격이 세계전역에 동일하게 확산되어 있다면 후기 資本主義社會에서나 社會主義社會, 더 나아가서 제 3세계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의 제기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革命的, 社會的 변혁의 가능성이다. 그의 社會的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의 批判理論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차원적 인간」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위해 납득이 갈만한 이념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사적 가치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대 기술적 合理性에 대한 그의 批判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술에 의한 억압된 社會에 대한 그의 批判은 Marcuse로 하여금 批判的 새 시대의 기수가 되게 했으며 청년학생 저항운동의 기수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社會辨證法的 批判理論이 현재와 미래를 직결시켜 주는 概念도 아니요, 그렇다고 기대를 주거나 성공을 제시해주는 현실성도 아니어서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否定性을 그는 단순한 형식적 부정성으로 수용하지 않고 변증법적 부정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생산적 부정성으로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말로서 Walter Benjamin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희망이 우

15) 上揭書, p255.

16) 上揭書, p259.

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이다」<sup>17)</sup>.

#### 4. Jürgen Habermas

##### 1) Habermas의 批判的 理論의 特性

Habermas의 「批判的」이라는 用語는 동시에 「反省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관리지배와 그 社會의 Ideologie를 계몽적 이성의 자기반성에 의해 추출하고 그것을 無化하려고 하는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과학론을 예로 들어 볼 때, 지금까지 행동과학에 근거해온 모든 과학의 「準據基準」(Frame of reference)은 실증주의적, 分析理性的이었던 점을 반성적으로 批判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증거기준의 모색을 지향한다. Habermas는 개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의 상호관계성을 행위주체 자신의 자기반성과 그것을 통찰하는 認識主體의 반성적 인식이라는 이중의 반성작용으로 어떤 事象과 對象을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分析理論的으로 파악해왔던 방법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것은 個體들의 社會的 행위대상과 認識主體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認識主體를 행위주체와 마찬가지로 社會的 행위라고 하는 경험의 선상에 놓고 그 사회적 경험의 위상에서 兩主體의 행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Habermas는 실증주의적인 분석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변증법적인 비판적 이론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다고 해서 Habermas 자신은 지금까지의 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들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들의 성과를 批判的인 社會理論을 현장으로 끌어들여 종합화 하려고 한다. 특히 Habermas에게 있어서 그의 비판적 이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실증주의는 Habermas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 經驗的·分析科學과 歷史的·解釋學的 科學의 두가지 영역을 포함한다.<sup>18)</sup>

Habermas가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社會學的 理想은 일찌기 Georg W.Hegel의 思

17) 上揭書, p317.

18) 黃源泳, 前揭論文, p561.

考展開에서도 발견한다. 예컨대는 「自己를 他者化하기 위해 자기자신을 媒介化한다」(die Vermittlung des Sichandereswerdens mitsich selbst), 「他者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환귀하는 反省」(Reflexion im Anderssein in sich selbst) 또는 「自記를 회복하는 同一性」(die sich wiederher stellende Gleichheit)을 통해서 個體로서 인간은 「自我」의 概念속에서 「우리들」(wir)이라는 복합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Habermas도 Hegel의 사고방법대로 「自我」를 「他者로서 또 다른 하나의 自我」(eines andere Ich als Anderes)와 매개하는 정신을 「相互主體性」이라고 규정한다.

共同主觀化된 相互主體性的의 확립, 이것이 Habermas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일성의 상실의 시대에서 自己同一性을 회복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相互主體性的의 市民的 意識을 「操作的 公開性」(Manipulative Publizität)으로 허위화하는 意識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의 物神化와 業績主義 이데올로기(Leistungs-ideologie)와 비판적 공개성의 機能상실을 批判한다.

그리고 인간의 허위의식으로 부터 해방되고 그 대신 共同主觀化를 실현시키는 言明構造의 확산을 위해 공개토론이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Habermas의 비판적 이론의 특질은 「解放」(Emanzipation)이며 이 해방의 방향은 공개토론으로 의사를 형성한다는 계몽주의에 수렴되는 것이며 또 공개토론을 억압하는 社會·政治·經濟制度를 비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sup>19)</sup>

## 2) 後期 資本主義 批判

Habermas는 M.Weber가 世俗化라고 이름붙인 合理化의 過程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世界觀과 客觀化는 神話로서, 공적인 종교로서, 慣習化된 祭儀로서, 정당화하는 形而上學으로서, 理論의 여지없는 傳統으로서 그 힘과 타당성을 상실하고 그 대신에 傳統的인 世界觀과 客觀化는 현대적인 價値定向의 사적인 구속력을 보장하는 주관적인 信念體系와 倫理로 변형된다. 즉 프로테스탄트 倫理로 변

19) 上揭論文, pp.562-563.

형된다.

둘째, 傳統을 批判하고 형식적인 法과 等價交換의 원칙들에 따라서 해체된 傳統의 要素들을 재조직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성물로 변형된다. 즉 合理主義의인 자연 법으로 변형된다. 이리하여 새로운 정당성을 독단주의적인 舊 이데올로기를 批判하고 근대 과학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사회의 상부구조로서의 이데올로기이다. 전통적인 지배는 國家介入을 통한 산업과정의 지속적인 規制는 放任된 자본주의 체제를 威脅하는 역기능을 방지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正當한 교환의 토대에 대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破壞시켰고 따라서 지배체제도 결코 생산관계에서 직접적으로 批判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지배체제는 새로운 정당성을 요구하여 자본주의 以前 社會에 內在하고 있는 강제력이 그 정당성을 更新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규제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의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는 以前의 부르조아적 형태와는 다른 정당성의 요구를 받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이 社會的 노동의 體制下에서 操縱 Mechanism으로서 機能하고 生産手段 所有者와 賃金勞動者 사이의 力學關係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은 Cybernetic 기능과 이데올로기적 機能을 함께 하게 된다. 그것은 자본가의 사회적 힘이 私勞動契約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사적으로 유용한 剩餘價値의 착취가 정치적 종속관계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생긴 배급이해의 모순은 體制強制의 모순으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 모순된 體制強制로 부터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여 즉시 사회적 위기로 변화한다고 본다. 또한 상품 숭배사조가 現存하는 세속화된 이데올로기와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경제 체제의 操縱原理에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위기는 자기반성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하나의 「危機를 同伴한 經濟成長過程」이라고 Habermas는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와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Habermas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네가지 위기경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經濟的 危機, 合理性 危機, 正當性 危機, 動機 危機의 네 가지다. Habermas는

이러한 위기경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국가기구가 價値法則의 자연스런 實行機關으로서 그리고 合併된 獨점자본을 계획하는 대리자로서 행동한다는 점이고, 合理性 危機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相反된 이해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체제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를 현상유지를 위해 형성함을 통하여 발생하는 行政的, 合理性의 破壞를 의미한다. 또한 正當性 危機는 體制的 한계요, 문화적 傳統에 있어서 행정적 간섭의 無定見한 政治化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動機 危機는 현상유지에 要緊한 傳統의 부식과 보편적 가치체계라는 새로운 요구로 인한 過중한 부담이라고 설명한다.

끝으로 Habermas는 이러한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合理性의 概念을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目的合理的, 體系合理的, 實踐的 合理性에 관한 것이다. 目的合理性은 다양한 계획기술을 體系合理性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서 計劃理論을 규범으로 하는데 비해 實踐的 合理性은 意志形成的 談論의 範例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實踐的 合理性에 기초한 意思疏通 理論的 計劃理論이 決定理論과 體系理論을 凌駕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批判的 社會理論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0)</sup>

### 3) 批判的 考察

우리가 Habermas의 해방적 批判理論을 한마디로 평범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Marx 이후 나타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그는 근대적 관료체제와 기술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신헌리주의 내지 신실증주의를 批判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쇄신하여 진정한 인간 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哲學의 영역과 社會學 영역을 별도로 인정하여 독립 학문으로서 제각기 주장하게 하지 아니하고 哲學과 社會學의 영역을 상호 통합하여 認識批判을 가능하게 하는 社會哲學의 복권을 주도하는 哲學的 인식관심에 있었다. 이와 같은 社會的 認識을 주도하는 관심을 체제화된 批判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 마르크스

20) 文顯丙,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公關性 回復의 問題—Habermas의 社會批判異論을 中心으로」, 부산여대 논문집 제6집(84.1), pp.183-187.

주의 구성을 이룩하게 하였다.<sup>21)</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 1世代의 Frankfurt 學派의 구성원들의 傳記를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sup>22)</sup>

첫째, 이들 第 1世代의 Frankfurt의 學派의 구성원들은 中産層 내지는 中産上層階級의 유대인 가정 출신이라는 점이다(그러나 Adorno의 경우는 양친중에서 한 사람이 유대계였다).

둘째, 이들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위기, 傳統的 自由主義의 붕괴, 권위주의의 위협 대두 등의 연구는 國家社會主義를 타도하기 위한 최선의 공헌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신념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Frankfurt 學派의 문제의식은 Marx와 Freud라는 두개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Freud적 문제를 Frankfurt 學派에 도입한 학자는 Fromm이었다. 그러나 Fromm은 Freud의 본능설을 사회학화하면서 신프로이드주의의 방향을 설정하여 프로이드의 本流로부터 이탈하게 한다. 이에 비해 Horkheimer와 Adorno는 오히려 Freud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를 심화 시킨다. 이처럼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어느 면에서든지 Frankfurt 學派의 방법론의 체계를 이룬다.

네째, Frankfurt 學派는 1840년대의 Hegel 左派의 문제관심에 환귀한다. 즉 Frankfurt 學派의 구성원들은 哲學과 社會分析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Hegel이 창출한 변증법적 방법을 도입하여 유물론적 방향으로 전회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Hegel左派와의 마찬가지로 인간의 「實踐(Praxis)를 통하여 社會秩序의 變革」에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런데 Hegel左派에 의해서 창조되는 社會改革의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社會主義의 유일한 현실적 사례는 소수의 고립된 유토피아적 공동체였다. 이에 대하여 Frankfurt學派에게 있어서 소련은 야심적인 성공사례였다. 그러나 Horkheimer에 의해 주도되는 Frankfurt學派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社會改革에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던 1930년부터는 사회의 새로운 「부정적」(혁명적) 노동자계급이 약체화되어가고 있었으므로 Frankfurt學派는 社

21) 백승균, 前揭書, p.399.

22) 黃源泳, 前揭論文, pp.553-554.

會改革의 주체로서 현실의 역사적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社會에 「內在的 批判」을 전개한다.

## V. 社會批判的 教育學의 主要 內容

Frankfurt學派의 사회 철학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교육연구에서의 社會批判的 방법론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후반 이후였다. 이 입장에서 서 있는 教育學者로서는 Klaus Mollenhauer, H.Blunkert, I.Dahmer, W.Lembert 등이 있다.

이들의 입장은 「批判的 教育學」 또는 「解放的 教育學」이라는 이름 밑에 다음과 같은 문제 설정에서 공통점을 갖는다.<sup>23)</sup>

첫째, 이데올로기 批判의 문제 설정과 방법

둘째, 解放的 認識關心 즉, 자유롭게 공정한 사회에서의 人間의 自由의 이념에 대한 분석과 批判을 행한다. 이 두가지 教育學의 意義의 想定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설에서 유래한다. 말하자면 人間의 思考라든가 行爲, 人間의 生의 樣式 制度로서의 科學의 問題와 方法 등을 포함하는 모든 文化的 客觀樣式은 社會的 政治的關係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的 客觀樣式은 後期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政治·社會·文化領域에 대한 國家個人主義의 조작의 결과로서 특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Habermas의 思考는 Marx主義의 思想의 경향을 선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批判的 教育學은 社會體制의 理念이라든가 思想을 모두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으로 규정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理念 등을 규정하고 있는 歷史的·社會的·政治的·經濟的 條件을 밝히는 동시에 지배계급의 認識關心과 연관시켜 그 認識關心의 虛偽性和 欺瞞性을 폭로하는 것을 주요 학문적 과제로 한다.<sup>24)</sup> 이와 같은 哲學的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비판적 方法의 教育科

23) 黃源泳, 「教育 哲學」, (서울: 대은출판사), 1985, pp.97-98.

24) 黃源泳, 「社會批判的 理論과 韓國教育哲學과의 連繫에 關한 研究」, pp.563-564.

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영역을 연구과제로 삼는다.<sup>25)</sup>

첫째, 社會體制 內的인 教育 理念이라든가 思想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이념을 아동들의 사회 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達成學歷水準의 제약이라든가 학업 성적에서의 계층차의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현실의 학교 제도에 내재하는 불평등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이론적 비판의 차원과 함께 실천적 개혁과 변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解放」, 「成熟」, 「民主化」 등의 지도이념을 제시하여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서 개혁의 모델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교육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적 방법의 教育學에서는 일련의 教育科學-教育改革-教育政策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구상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볼 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 사회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教育科學의 연구 동향과 문제 설정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첫째는 Habermas의 「討議(Diskurs)」 이론이 教育科學으로의 수용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목표 규범 결정의 정당화(公認)를 위한 當事者 同志(關係者)의 의사 소통의 문제이다. 이론적 토의, 임상적 토의, 실천적 토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다. 그의 討議의 세가지 유형은 객관성과 합리성만을 존중한다는 教育科學 理論에서도 반드시 음미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들이다.

둘째는 그래서 教育科學에서의 Habermas的 討議理論의 수용과 발전적 고찰은 Mollenhauer의 批判的 教育科學에서도 볼 수 있다.

Mollenhauer의 批判的 教育學에서는 討議 그 자체가 民主主義的이며 合理的인 方法으로서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討議能力 그 자체가 意思疏通과 相互作用能力의 최고의 단계로서 自己規定과 共同規定의 기본 원리이며 동시에 교육의 기초적 目標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批判的 教育學의 기본 목표는 共同主觀化를 실현시키는 보편 타당한 言明構造의 보장과 討議能力의 형성

25) 黃源泳, 「教育 哲學」, p.99.

26) 黃源泳, 「教育 哲學」, p.102.

과 操作的 公開性과 虛僞意識의 근원인 이데올로기 批判的 否定으로 집약된다.<sup>27)</sup>

## VI. 結 論

Frankfurt學派의 批判 哲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暫定的인」評價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現代의 어떤 思想體系보다도 哲學의 批判的 精神을 철저하게 傳承해 나가고 있다는 點일 것이다. 그리고 觀念的 公허성을 탈피하여 具體的인 現實分析을 通하여 現代 社會의 諸矛盾을 的確하고, 批判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未來의 Utopia에 대한 積極성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否定的 側面에서 보면 批判理論의 哲學은 계급성을 지닌 哲學임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批判理論의 理性概念은 아직 不완전한 이성으로만 把握되고 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理成은 否定性이요 따라서 同一 哲學은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판으로서의 哲學은 빈곤이요, 나아가 哲學 自體일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Horkheimer의 「편견의 연구」, Adorno와의 공저인 「계몽의 변증법」, Marcuse의 「에로스와 문명」, 「일차원적 인간」, Fromm의 「자유로 부터의 도피」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낳게 한다.

批判的 理論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과학 기술 지배의 고도산업사회에 人間의 사고와 행동이 일차원하여 人間의 자기동일성의 상실과 소외현상을 심화시키는 기성사회체제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偉大한 拒絶」을 강조한다.

批判的 教育學은 批判的 理論의 實踐學으로서 성격을 확고히 하면서 現代 教育學의 조류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批判的 教育學이 자기 규정을 확고히 하면서 現代 教育學의 조류에 하나의 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批判的 教育學이 教條的 權威의 독단과 횡포를 비판적으로 부정하고 道具的 理性이 아니라 계몽

27) 黃源泳, 「社會批判的 理論과 韓國教育哲學과의 連繫에 關한 研究」, p.569.

적 이성이 지배하는 社會 實現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Frankfurt學派를 구성하는 학자마다 사회 비판적 이론의 체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 비판적 이론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 관심은 자기 동일성의 회복과 人間主義의 실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批判的 理論의 실천학으로서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批判的 理論의 실천학으로서 批判的 教育學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批判的 教育學의 수용에는 다른 이질적인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社會, 文化, 歷史的 조건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적 검토와 여과작용이 전제가 된다.

批判的 教育學은 우리와는 다른 社會, 文化, 歷史的 조건의 狀況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批判的 教育學이 人間의 삶의 現實의 질적 개혁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적 부정과 理性的 辨證法的 도야에 직접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目標들은 삶의 現實的 문제보다 고전 복귀 지향적인 문제나 추상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의 學問的 態度에 대해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본다.<sup>20)</sup>

批判的 教育學의 結論的인 內容이라 할 수 있는 理想的 談話 狀況의 提示도 現實의 政治, 經濟, 社會에서 볼 때 거의 實現 不可能한 理想으로 비칠 뿐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이제 Frankfurt學派의 批判的 教育學은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性 있는 代案 提示에 한 층 盡力해야 하리라 믿는다.

20) 黃源泳, 「社會批判的 理論과 韓國教育哲學과 連繫에 關한 研究」, pp.565-566.

## 參 考 文 獻

### I. 單行本

- 강영계 역, (Habermas 저): 「인식과 관심」, 서울;고려원, 1983.
- 강재윤 역, (구스타프 A, 베타 저),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서울;태양문화사, 1981.
- 金用駟, 「教育史 및 教育哲學」, 서울;法文社, 1989.
- 박준영, 「사회과학 방법론과 해석학」, 서울;현대 사회, 1983.
- 백승균, 「변증법적 비판 이론」, 서울;경문사, 1982.
- 신일철 편, 「프랑크푸르트학과」, 서울;청람문화사, 1981.
- 吳天錫, 「教育哲學新論」, 서울;敎學社사, 1972.
- 吳天錫 譯, (John dewey저), 「民主主義와 敎育」, 서울;敎育科學社, 1984.
- 吳天錫, 「教育哲學新論」, 서울;敎育研究社, 1987.
- 李相殷, 「現代와 東洋思想」, 서울;日新社, 1968.
- 임재진 역, (habermas 저), 「후기 자본주의 정당성 문제」, 서울;종로서적, 1983.
- 張眞鎬, 「民族敎育의 展開」, 서울;實學社, 1974.
- 정일조 역, (habermas 저), 「理性的인 社會를 위하여」, 서울;종로서적, 1979.
- 韓基彦, 「韓國 敎育 思想 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 黃源泳, 「敎育 哲學」, 서울;대은출판사, 1985.
- 황재우 외역, (마틴제이 저), 「변증법적 상상력」, 서울 돌베개, 1981.
- 홍윤기 외역, (habermas 저), 「이론과 실천」, 서울;종로서적, 1982.
- Don Matrindale, 「The Nature and Types of Sociological Theory」, University of Minnesota, Boston, 1981.

### II. 論文

- 문현병,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공개성 회복의 문제—habermas의 사회 비판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여대 논문집 6집, 1984.

문현병, 「비판 이론에 있어서 철학의 기능」, 부산여대 논문집 9집, 1985.

박치환,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4.

黃源泳, 「社會批判的 理論과 韓國 教育 哲學과의 連繫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논문집 19집, 1985.